

[ 종합 ]

“암·심혈관 질환 사망 최다”

서울대 등 120만명 추적조사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부담이 큰 질병은 암과 심혈관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대 의대, 고대 의대,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한국인 120만969명을 무작위 추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140여개 질병을 추적 조사한 ‘한국인의 질병부담 2005년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02년을 기준으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

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 34.1%, 여성은 27.2%나 차지한다. 전체 숫자로도 5만9천명이나 된다. 보고서는 암에 의한 사망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에게서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자 가운데 남성의 22.1%, 여성의 32.8%가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됐다. 뇌졸중은 전체 환자 중 18%가 사망하고 73%는 회복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

검찰 ‘현대차 비자금’ 본격수사

채양기 사장 이어 임직원 줄소환 비자금 조성 경위·사용처 등 추궁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채양기 기획총괄본부장(사장)에 이어 현대차와 글로벌비스 임직원들을 줄줄이 불러 비리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30일 “채 사장을 이달 28일 소환조사했고 어제는 이정대 재경본부 부사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채 사장과 함께 현대차그룹의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100억이 넘는 비자금 조성 경위와 양재동 본사 건물 증축과 관련한

로비 대상 등이 파악되는 대로 정몽구 회장과 정희선 기아차 사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 그룹 압수수색 이후 며칠 간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그룹 임직원이 29일부터 기존의 태도를 바꾼 소환 요구에 적극 응하고 있어 사주 일가에 대한 조사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주력함에 따라 금융브로커 김재복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로비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유가 8주만에 최고치

WTI 배럴당 66.45달러

미국의 가솔린 재고가 급감했다는 발표에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8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전날 종가에 비해 38센트 오름 배럴 당 66.45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영국 런던 원유시장의 5월 인

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날에 비해 2센트 오름 배럴 당 64.98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부는 앞서 지난주 가솔린 재고가 지난 2003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인 540만배럴이 감소하면서 2억1천620만배럴을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유재고는 210만배럴이 늘어난 3억4천700만배럴에 달했다고 에너지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도 각종 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우선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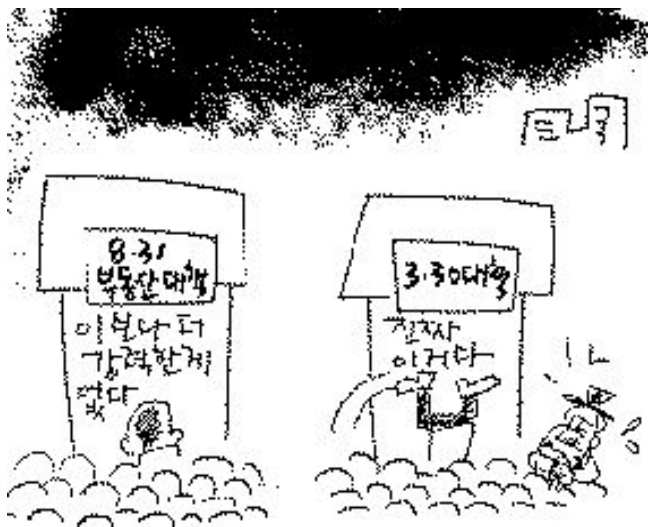
도 ‘마스터플랜’ 용역보고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역 내에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이 들어서야 하며, 사업 타당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30일 전남도청 상 황실에서 발표된 ‘외국인 학교·병원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경희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전남은 취학 연령 외국인 수가 367명에 이르지만 외국 인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취학 연령 외국인 수가 전남과 비슷한 광주와 전북, 강원, 충북 등은 1~3곳씩의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용역팀은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무인 개발도시·나주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경우 외국인 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조기유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용역팀은 이와 함께 지역 내 고소득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등에 따른 외국인 정주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병원 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모델로는 가벼운 질환을 주로 취급하면서도 심각한 환 치료나 방산선 치료 같은 고급의 반면 취학 연령 외국인 수가 전남과 비슷한 광주와 전북, 강원, 충북 등은 1~3곳씩의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대책’ 안세우는데 대책!

정몽규 회장 내달중 소환

검찰, 진승현씨에 15억 제공 관련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0일 진승현씨에게 15억원을 제공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다음달 중 소환, 횡령 혐의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몽규 회장이 2003년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아 진씨에게 건넨 것이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주

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처분과 관련이 있는지 캐고 있다. 진씨는 1999년 당시 현대산업개발 소유인 신주인수권을 싹쓸이 받아 리젠트증권에 비싸게 되팔 뒤 발생한 차액 중 50여억원을 정 회장에 비자금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자동차 전차종 돈없이 사용료만 내고 탈수 있음 새차·전차종 임대상당 (절세 효과) ● 소유 개념에서 임대개념(기간: 12~42개월 선택가능) ● 현대·기아·삼성·쌍용·대우·수입차·중형차 무보증 무담보 상환형 현대캐피탈(주)클러스오토리스 팀장 손홍훈 011-649-0874

중고차 최고가 삽니다 ● 모든차량 “최고금액” 당일 현금 지급 및 당일 명의 이전완료할 사설본, 파실본 상담 환영합니다 ● 로영기 (하남/천안/주)인모터스 이사:윤영기 011-249-0060 FAX.062-954-4848

임대 ● 총장로5가 ● 엔터사내마차중 120평 임대 ● 입주 및 임대료 협의 T.222-6224, 011-637-2526

제3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Table with 4 columns: 과목, 산, 금액, 과목, 부채. Title: (제15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Includes sub-headers for I. 유동자산, II. 고정자산, III. 자산총계, and IV. 부채와 자본총계.

Table with 4 columns: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Title: 第15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Includes sub-headers for I. 유동자산, II. 고정자산, III. 자산총계, and IV. 부채와 자본총계.

Table with 4 columns: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Title: 제3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Includes sub-headers for I. 유동자산, II. 고정자산, III. 자산총계, and IV. 부채와 자본총계.

우미건설(주) 대표이사 이석준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15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오찬석

進興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林光澤 監査意見: 위 貸借對照表를 포함한 第15期 財務諸表는 重要性의 観点에서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作成되었습니다. 第30號 公認會計士監査班 公認會計士 손찬환, 이명신, 최동진

錦湖産業 株式會社 代表理事 副會長 申勳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3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찬석